

❖ 『므첸스크 현의 맥베드 부인』, 러시아적 전통의 또 다른 고리

I. 니콜라이 레스코프(1831~1895), 풍속작가 이상의 러시아 작가, 지성인, 종교인
; 러시아 농촌과 소도시 삶의 관찰자, <'60년대 이념 논쟁의 희생자>, 기독교 윤리주의자.

1. 젊은 시기(1831~49) -> 인성 형성기

- 지방 하급 성직자의 가정에서 자라난 레스코프는 두터운 신심의 바탕을 얻게 되고, 고향에서 잠깐이나마 학업을 쌓고 재판소에 근무

2.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시기(1849~57)와 “범선 시기”(57~61) -> 작가로서의 삶을 다지던 시기

- 키예프 대학의 교수인 친척의 집에 머물며 학구적인 분위기에 몰입. 게르첸, 포이에르바하 등의 서구주의와 서구의 저작물 탐독.

- 러시아의 조상적인 동슬라브 문화와 종교 유산의 본령인 키예프에서 더욱 자신의 종교적 이해와 지식을 넓혀감.

- 동시에 슬라브적인 우크라이나의 민속과 서구적인 폴란드의 영향과 색채 등을 접하며 더욱 성숙된 세계관을 갖추기 시작.

- 이후 친척인 영국인 스콧과 함께 일을 하며 러시아의 귀족 영지와 전역을 편력하며(범선 시기), 러시아 곳곳의 다양한 습속과 전통, 민족지(民族誌)적인 모습을 목격하고 체득함. 낭만적이며 목가적인 자연의 풍광만을 관찰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는 온갖 다양한 인간군상의 존재와 생활, 사회적, 정치적, 철학적, 민족적, 종교적 문제 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얻음. 이후 레스코프의 세계 전반에 큰 영향과 자양분을 안겨준 시기라고 생각.

3. 본격활동기 (1860~72 / ~87 / ~94)

; 시대와의 ‘대화’ / 근대화된 성자의 삶이라는 이야기 / 거짓과 위선에 대한 비판과 풍자

- '60년대, 논쟁의 시기의 레스코프. vs 혁명적 사회주의, 『막다른 골목』, 『건원지간』. ‘이념적’인 소설과 동시에 『므첸스크 현의 맥베드 부인』, 『쌈답』, 『플로도마소보 마을의 옛 시절』 등 러시아 농촌과 소도시의 삶이 진하게 묻어나는 토속적인 작품들도 함께 발표. 그러나, 전자의 영향으로 후자는 조명을 크게 못 받음.

- '70년대, 러시아 지방의 하급 성직자들의 삶을 그린 『성직자들』, 『봉인된 천사』 등이 문학적으로도 인정을 받으며 『신들린 순례자』, 『왼손잡이』 등 20대 삶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문학적 자양분이 꽃을 피우게 된다.

- 또한 이 시기, 제도로서의 교회와 기독교를 배격하고 삶을 위한 윤리로서의 기독교에 관심을 쏟게 되고, 톨스토이와의 교유도 두터워지게 된다.

- 자연스레 문학 작품에선 ‘교회’에 대해 비판적이며 풍자적인 경향을 띠게 되고, 전승되어 오던 성자들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재구성한 작품들로 문학가로서의 역량도 과시한다.

-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더욱 신랄한 풍자와 비판적인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등이 교차하면서 어느 흐름에도 속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로운 사상가, 실천가로서의 면모를 숨기지 않게 된다.

II. 사랑밖엔 몰랐던 『러시아의 맥베드 부인』의 비극

; 진실한 감정 vs 이해타산, 본성 vs ‘전통’,

1. 19세기, 러시아 지방 중소도시와 상인 계급의 삶

- ‘전통’에 매여사는 폐쇄적이며 퇴행적일 가부장적인 삶

cf) 알렉산드르 오스트로프스키 『뇌우』(1859)의 비극적 여인 카테리나

2. 공간과 시간의 배치와 흐름, 이동과 변화

- 집(다락방) vs 마당, 계절의 흐름과 변화, 유형을 떠나는 이동과 사랑의 ‘이동’

3. 진실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불태우는 러시아적 여인의 또 다른 한 유형

- 푸쉬킨의 현묘해지는 여인, 레르몬토프의 사랑을 좇지만 찾지 못하는 여인, 투르게네프의 자제하는 여인, 도스토예프스키의 “숙명적인 여인”, 톨스토이의 여러 아름다운 여인과는 또 다른, 러시아적 부피와 한겨울의 붉은 마카목과 같은 순정성이 느껴지는 또 다른 여인상의 창조.

4. 묘사와 비유

- 봄물에 무너진 제방, 더 이상 떨어지는 않는 사과꽃잎, 눈물처럼 흘러내리는 성에, ...

Quiz 1 『러시아의 맥베스 부인(프첸스크 현의 맥베드 부인)』

성명:

* 아래의 질문에 간략하게 답하시오. (각1점)

1. 여주인공 카테리나가 나이차가 거의 두 배나 나는 상인 이즈마일로프네 집에 시집온 이유는 무엇인가?
2. 자신의 부정을 알아챈 시아버지 보리스 티모페예비치를 카테리나는 어떻게 죽였는가?
3. 사과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변의 풍광에 투사시켜 둘러보던 카테리나는 세르게이의 계속되는 무덤덤한 태도에 은근 뽀루통해져서는 그의 무성의한, 마지못해 하는 듯한 키스에 편잔을 준다. 그러면서, 어떻게 키스해 달라고 심지어 그녀는 청하는가?
4. 카테리나의 꿈에 나타난 고양이는 누구의 모습을 하고 있던 고양이였는가?
5. 남편 지노비 보리소비치가 찾아와 아내 카테리나가 살던 침대를 살펴보며, 세르게이의 흔적, 즉 허리띠를 찾아냈을 때, 카테리나는 이를 무엇이라고 변명했는가?
6. 어린 폐자가 재미있다고 즐겁게 읽은 책은 무엇인가?
7. 폐자의 죽음을 목격한 무리는 어떤 연유로 카테리나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던가?
8. 세르게이가 신부에게 자백을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9. 유형지로 호송을 당할 때 어려움 끝에 만난 세르게이가 다리가 아프다고 불평을 했을 때, 카테리나가 그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는가?
10. 카테리나는 왜 세르게이를 죽이지 않고 소네트카와 함께 물에 빠졌을까요...?